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허벅과 질그릇 제작에 관한 연구

Study about manufacturing Jeju Herbuck
and unglazed earthenware

제 출 자 : 박 병 욱

지도교수 : 박 종 훈

2009

도예학과

도예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제주 허벅과 질그릇 제작에 관한 연구

Study about manufacturing Jeju Herbuck
and unglazed earthenware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 월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도예전공

박 병 욱

박병욱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 2009. 11.

심사위원장

김해수

심사위원

이종훈

심사위원

권오훈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요약)

제주 허벅과 질그릇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박 병 욱

지도교수 : 박 종 훈

제주도의 흙은 지리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른 지역과는 다른 구조를 보인다. 아연과 구리 같은 철류, 자기용 점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함유량이 적으므로 생산되어지는 모든 용기들이 도기이다. 또한 가마나 향아리 같은 말이 존재하지 않고 가마는 '굴'이라고 하며 향아리는 '통개'라 불리운다. 제주도 가마는 두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불의 온도가 섭씨 1200도 내외에서 소성을 하는 가마를 일컬어 '노랑굴'이라 불리 우며 900도 내외에서 소성을 하는 가마를 '검은굴'이라 한다.

본 해설집은 제주의 흙으로 기물을 성형하고 노랑굴과 검은굴 에서 구워졌던 용기를 개량식 장작가마를 통해 소성 함으로써 점차 사라져 가는 제주옹기 문화를 알리고 그 가치를 되살려 제주의 옹기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 차

해설요약	i
 서론	
Ⅰ. 제작의도	1
Ⅱ. 제주 옹기의 종류 및 고찰	2
1. 허 벽	2
2. 통 개	6
3. 질그릇	6
Ⅲ. 제주 전통가마의 종류 및 고찰	9
1. 노 랑 굴	10
2. 검 은 굴	10
 본론	
Ⅰ. 제작방법	
1. 소 지	11
1) 소지실험	12
2. 성형기법	12
3. 문 양	13
4. 소 성	14
1) 1차 본소성	15
2) 2차 본소성	16
Ⅱ. 작품의 설명	
 결론	
기대효과	41
 참고문헌	
영문요약	43

서론

I. 제작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간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대량 생산을 통한 다양한 소지의 생활용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우리의 옛 그릇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주도는 도자기 기술이 전수된 이래 마을 단위의 공동 가마를 가지고 필요한 그릇들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하지만 변화되는 세월의 흐름에 활발했던 제주의 도자공예는 점차 쇠퇴 되었고 1960년대 말에 완전히 폐요(廢窯)되었다.

관련 일에 종사 했던 사람들은 전업 하였거나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며, 현존해 있는 대부분의 가마는 허물어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제주도 옹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틀을 만들고자 한다.

II. 제주 용기의 종류 및 고찰

1. 허 벽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그로인해 다공질의 현무암이 생성되었다. 현무암은 화산회토(火山灰土)이므로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빠져나가 해안가에서 물이 솟아나는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물이 솟아나는 지역을 용천수(湧泉水)라 부른다. 이곳에서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까지 물을 기러 나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허벽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물을 가득 담은 채 넘치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 허벽의 모양은 배는 부르고 목은 좁게 만들어 졌다. 제주도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허벽은 제주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용기였다.¹⁾

허벽의 종류로는 일반적인 성인들이 지고 다녔던 허벽과 특별히 주문하여 다양하게 만들어진 바룻허벽(맞춤허벽), 15~17세의 소녀들이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하던 대배기와 그 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사용했던 아기 대배기가 있다.

목이 더 좁고 전의 크기가 일반적인 허벽보다 큰 것을 '허벽등덜기', 허벽과 같은 모양의 전이지만 조금 낮고 넓은 것을 '허벽방춘이', 전이 가장 낮고 넓은 것을 '허벽능생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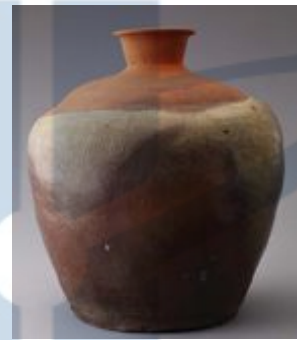
그 외 용도에 따라 물허벽, 술허벽, 죽허벽, 씨허벽, 오줌허벽으로 나누어 지고 쓰임에 따라 총 36가지의 세분화된 종류를 가지고 있다.

1) 「허벽과 제주 길그릇」 제주특별자치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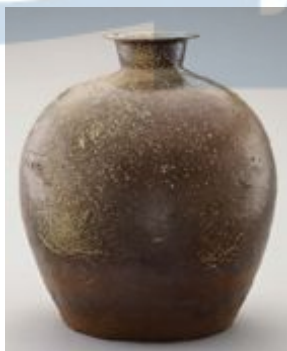
〈웃데기허벅〉

가마 재임시 가장 윗부분에 재임을 하는 허벅을 일컫는다.



〈알데기허벅〉

재임시 중간 부분에 재임을 하며 아랫부분은 통개 즉 항아리로 받치고 윗부분은 장태(자배기)로 덮어 위쪽 기물의 무게에 의한 눌림 자국이 선명하다.



〈허벅대배기〉 2)

〈허벅대배기〉

〈애기허벅대배기〉 3)

2) 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3)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일반허벅보다 작으며 15~17세의 소녀들이 물을 기를 때 사용했다.
 애기허벅대배기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였다.



〈허벅방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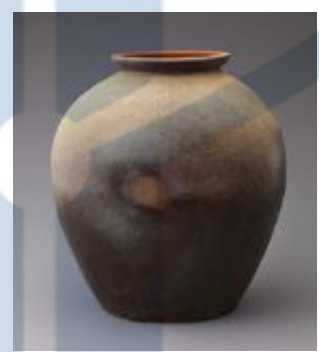
〈대배기방춘이〉



〈애기대배기방춘이〉 4)



〈허벅능생이〉



〈귀능생이〉 5)



〈맞춤능생이〉



〈애기대배기등덜기〉

4) 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바릇허벅〉



〈바릇허벅방춘이〉 6)



〈바릇허벅등덜기〉 7)



〈긴대배기〉 8)



〈긴애기대배기〉 9)



〈지새긴대배기〉

-
- 5)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 6)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 7)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 8)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 9)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지새허벅〉 10)



〈지새대배기〉 11)



〈지새애기대배기〉

2. 통 개

제주도에서는 항아리를 '통개'라 부른다. 용도로는 된장이나 간장등 장을 담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곡식저장용기로 사용 되었다.



〈웃통개〉



〈알통개〉



〈시불웃통개〉



〈시불통개알동〉

10) 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11) 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3. 질그릇



〈대항〉



〈양춘이〉



〈망대기〉



〈대배기망대기〉



〈허벅망대기〉



〈합단지〉



〈조막단지〉



〈소능생이〉



〈개장태〉



〈코동이장태〉



〈독사발〉



〈두벵들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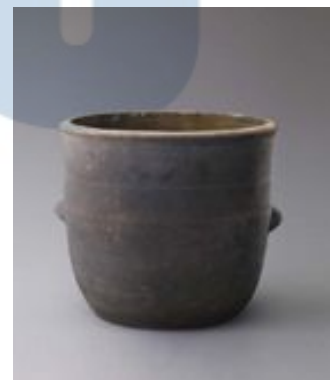
〈고소리〉



〈씨항〉



〈지새항〉



〈지새시리〉 13)

12)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1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유물 / 「허벅과 제주 질그릇」 제주특별자치도 2007

Ⅲ. 제주 전통가마의 종류 및 고찰

제주도에서 가마는 굴이라 불리운다. 제주도의 가마가 내륙지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돌을 이용하여 축조 한다는 것이다. 현무암은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석이어서 내화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⁴⁾ 굴은 소성온도와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불의 온도가 섭씨1200도 내외에서 소성하는 가마를 일컬어 ‘노랑굴’이라 하며 900도 내외에서 소성을 하는 가마를 ‘검은굴’이라 한다. 제주도는 내륙지역과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릇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사용 하였다. 각 마을 단위로 굴이 있었으며 보통 굴은 마을 공동의 소유 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3일 일어난 4.3사건을 계기로 굴과 마을의 대부분이 불에 타 없어졌고 그나마 남아 있던 굴들도 쇠퇴되어 현재 남아 있는 굴이 많지 않다.

제주도에서 가장 흠이 좋았다는 제주시 광령리의 경우 감귤밭 한켠에 널부러져 있는 용기 파편들이 예전의 가마터였음을 짐작케한다.

이제는 그곳 주민들조차 이곳이 예전의 가마터였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었다.



〈제주시 광령리 의 옛 가마터 부지〉

현재 제주도에는 9개의 가마터가 남아 있다. 대정읍 구억리에 노랑굴과 검은굴 각 1기, 신평리와 신도리에 노랑굴 1기, 한경면 청수리, 조수2리, 고산리에 각각 노랑굴1기 씩이다. 나머지 하나는 기와 가마터로 조천읍 함덕리 함덕 해수욕장 안에 있다.¹⁵⁾

〈현재 보존되고 있는 제주도 전통가마 분포도〉

14)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15)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1.노랑굴

노랑굴은 일상생활에 주로 쓰였던 1200도 내외의 그릇들을 구워냈던 가마를 말한다. 노랑굴의 명칭은 유약을 따로 바르지 않은 제주 옹기의 태토와 재가 날려 자연유가 되어 발색되어진 빛깔이 '노란색을 많이 띤다' 하여 노랑굴이라 불렀다. 대부분의 노랑굴은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축조 되었기 때문에 굴뚝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자연 경사 각도(보통15~18도)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였다.¹⁶⁾

2.검은굴

검은굴은 노랑굴보다 소성 온도가 낮은 900도 내외로 연을 먹인 그릇들을 구워냈던 가마를 말한다. 이를 제주도에서는 '지새'라 불리운다. 지새는 기와의 옛말인 '디새'에서 온 것으로 짐작된다.¹⁷⁾ 소성온도가 낮았으므로 기물의 파손이 심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기물의 양이 많지 않다.

16) 「제주전통도예」 강창언, 가시아히 2000

17)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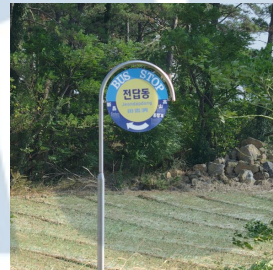
본 론

I. 제작방법

본 연구의 작품은 썰질기법과 챗바퀴 타렴기법을 이용하여 소지의 채취를 시작으로 소지실험, 성형, 문양, 소성의 순으로 제작하였다.

1. 소 지

소지는 고산리 전담동에서 직접 채취한 제주옹기토를 사용하였고 옹기토의 황토와 백토의 비율을 1대2의 비율로 채취하였다. 수비방법은 분쇄기를 이용하여 채취한 흙 속의 작은 돌맹이들을 걸러 내고 80목으로 수비한 다음 서늘한 곳에서 60일 정도 숙성 시킨 후 사용하였다.



〈고산리 전담동 에서 채취한 제주 옹기토〉

1)소지실험

소지실험은 채취한 흙의 소결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250도 내외의 연을 먹이는 푸레 기법과 700도 내외로 연을 먹이는 지새기법으로 진행 하였다.



〈온도별 소지실험〉

사진 왼쪽부분 기물의 온도는 1000도 내외, 가운데 기물은 1100도 내외, 오른쪽 기물은 1200도 내외로 장작가마에서 각각 꺼먹이 소성을 하였다. 실험결과 어둡게 연이 먹여진 기물들을 통해 침탄 되어지는 소성 범위가 일반 옹기토 보다 넓다는 걸 알수 있고 연먹이는 효과가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

2. 성형기법

옹기 제작기법은 썰질 기법과 배게 타렴, 챗바퀴 타렴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썰질 기법은 목(木)물레위에 먼저 바닥판을 만든 다음 흙가래를 만들어 둥그렇게 쌓아 말아 올려 가죽을 이용해 성형하는 방법으로 주로 작은 기물을 성형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

배게 타렴은 썰질에 의한 방법은 같지만 물가죽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수레와 조막을 이용해 수레착질 하는 방법이다.

챗바퀴 타렴은 바닥판을 만든 다음 흙가래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판장을 만들어 바닥판에 두른 다음 수레착질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바닥판과 판장을 붙일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붙여줘야 한다.

제주도의 옹기 만드는 방법은 내륙지방, 특히 전라도 지역 옹기기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작은 기물들은 주로 썰질로 만들고 큰 기물들은 챗바퀴 타렴 기법으로 제작 하였다.

하지만 허벅은 썰질 기법과 챗바퀴 타렴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몸통은 판장을 이어 붙인 챗바퀴 타렴으로 성형을 하고 부리부분은 썰질기법으로 성형한다.

그로인해 허벅의 부리 부분(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흉가래를 붙인 자국이 남아 있기도 한다. 허벅 만드는 방법은 내륙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형 방법으로 제주도만의 독창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다.¹⁸⁾

3. 문 양

옹기 제작에 있어서 보로롱문 과 근개띠문, 톱니 문양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①보로롱문

제주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양으로 대나무를 가늘고 길게 켜서 만든 다음 성형이 끝난 기물을 물레에서 들어 내지 않고 물레를 돌린뒤에 기물의 벽에 대면 대나무 윗부분이 떨어지면서 '보로로롱'하는 소리와 함께 자국이 생기는 문양 이다

②근개띠문

근개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음각선을 표현하는데 전과 평행한 직선형이 대부분이다.

③톱니문

물기가 많은 같은 소지의 흙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띠줄을 붙인후 물가죽으로 다듬어서 만든다. 만들어진 띠줄 위에 물가죽을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눌러 표현한 것을 톱니문이라 한다.¹⁹⁾

18) 「제주전통도예」 강창언, 가시아히 2000

19) 「옹기문양」 옹기민속박물관 2002.

4. 소 성

제주도의 가마는 전형적인 통가마의 형식을 취하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가마를 지을 때 흙으로 만든 벽돌이나 내화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다공질의 현무암을 그대로 쌓아 만든다. 이는 제주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 것이며 현무암에 뚫려 있는 수많은 구멍들은 열을 쉽게 방출하지 않는 내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가마는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선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량식 장작가마를 통해 제주도의 소성방법에 의한 단벌소성 하였다.

제주도 흙은 온도에 민감하므로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쉽게 주저 않는다. 따라서 가마재임시 기물과 기물사이에 구쟁이닥살(소라)을 받쳐줌으로서 기물이 서로 달라 붙지 않게 하였고 이로인해 소성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양을 의도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기물과 기물을 포갤 때는 조금(소라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 가루를 낸 것)을 포갠 기물 사이에 얹혀서 재에 의해 달라붙는 것을 방지 하였다. 연료로는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Small Orton 06번 콘(1023℃), Small Orton 01번 콘(1178℃)과 Small Orton 4번 콘(1209℃)을 사용하여 소결점을 측정 하였다.



구쟁이닥살(소라)



조금(소라를 구워 잘게 부순 것)



구쟁이닥살 받친모습

1)1차 본소성

1차 본소성은 1200도 내외의 일반 장작가마로 제주도 노랑굴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다.

재임후 30시간으로 소성시간 계획을 잡고 피움불, 작은불, 중불, 큰불, 잿불(창불) 순으로 진행하였다.

피움불은 가마와 기물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200℃정도 까지 군불로 천천히 때주었다. 소성시에 기물에 냉기가 돌면 쉽게 깨지며 제대로 익지 않는다. 소성시간은 8시간 소요 하였다.²⁰⁾ 작은불은 피움불의 이어지는 단계로 점점 봉통 안쪽으로 불을 넣는다.

소성온도는 500℃내외 이며 4시간 소성 하였다.

중불은 완전히 불길이 봉통 안에 꽂차기 시작하는 단계로 기물표면의 그을음이 제거 되기 시작한다. 가마안이 달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불길이 약해지지 않도록 장작을 꾸준히 넣어 줘야한다.

소성온도는 500~900℃내외이며 8시간 소성 하였다.

큰불은 900~1150℃까지 소성하였다. 봉통의 불길이 빠르게 기물이 있는 쪽으로 빨리 들어가 기 시작하며 불길의 색깔이 점점 밝아진다. 굴뚝에서는 빨간 불꽃이 치솟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온도가 한번 떨어지면 쉽게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불길이 멈추지 않도록 장작을 충분히 넣어준다. 이때부터 잿불(창불)구멍을 통해 콘의 기울어짐을 확인한다.

5시간30분 소성 하였다.

잿불(창불)질은 Orton 01번 콘 (1178℃)이 완전히 넘어가는걸 확인하고 시작하였다. 잿불질 하기전에 충분히 봉통을 달궈줘야 전체적으로 불길이 안정적으로 잡힌다. 따라서 잿불질 할 때 불구멍을 확인하면서 봉통 앞부분에 충분한 나무를 투척해 준다. 또한 잿불나무가 기물을 건들지 않게 신중하게 투척한다. 1200℃내외 까지 1시간 40분 소성하였다.

20)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소성이 끝나면 잿불구멍과 봉통을 벽돌과 젖은 흙을 이용해 적당히 막아준다. 이때 너무 꼼꼼하게 막으면 아직 타고 있는 나무재에 의해 연을 먹게 되어 기물이 어둡게 변하고 반대로 너무 간단히 막으면 냉파가 쉽게 올수 있기 때문에 소성이 끝난 후 약간의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적당히 가마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2)2차 본소성

2차 본소성은 900도 내외의 연을 먹이는 꺼먹이 소성으로 제주도 검은굴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다. 소성방법은 1차 소성 때와 동일하며 Small Orton 06번 콘(1023℃)을 사용하여 소결점을 측정 하였다.

가마가 1000℃내외로 익어가면 연을 먹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콘이 넘어간 후에 봉통 안으로 생솔가지를 넣어준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걸 확인하면 곧바로 봉통과 굴뚝을 모두 막아주어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고 기물에 침투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문이 막혀 있으므로 가마 안에서는 열과 압력에 의해 가마 틈새가 벌어져 연기가 새어 나온다. 이때 젖은 흙을 이용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곳은 모두 막아준다.

소성이 끝나면 가마안의 열이 충분히 식을 때 까지 (2~3일 소요)기다린 다음 기물을 꺼낸다.

III. 작품 설명

〈시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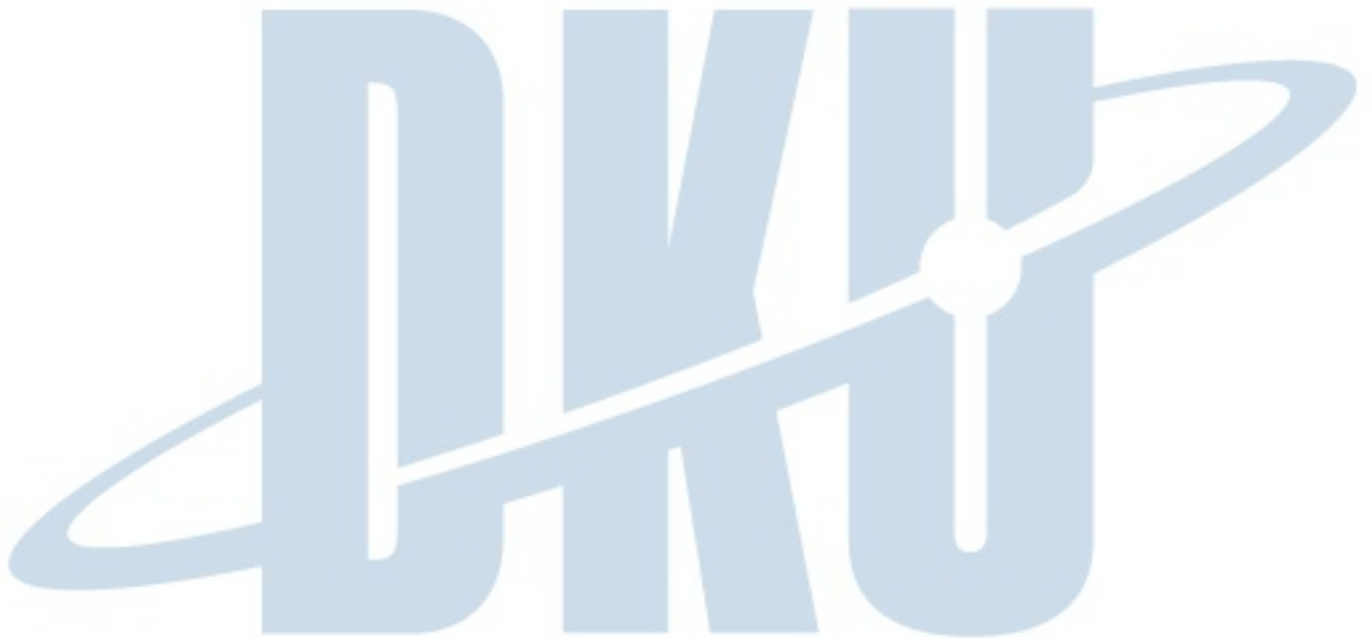


400 × 36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시작품 1〉설명

본 작품은 허벅능생이의 형태에서 전부분을 눌러 납전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기물과 기물사이에 붙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넣은 구멍이 닥살로 부분적인 환원을 가해 색상의 변화와 자연스러운 문양을 의도하였다. 보로롱 문양으로 시문하였고, 챗바퀴타럼 기법으로 만들었으며 유약을 바르지 않고 전통가마에서 1200℃ 단벌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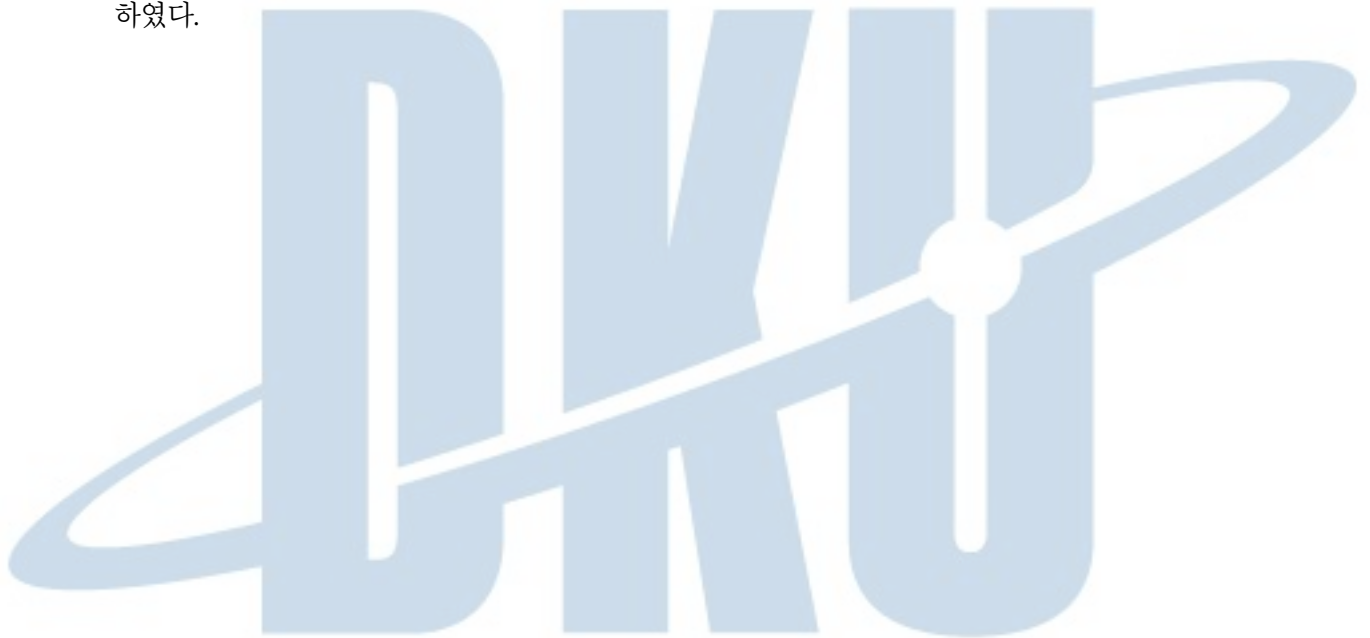
410 × 40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시작품 2〉설명

본 작품은 허벅능생이의 형태를 표현 하여 본 것으로 〈시작품 1〉과 마찬가지로 보로룽문양 으로 시문하였다. 부분적으로 환원에 의한 푸른 빛과 구쟁이닭살에 의한 문양을 표현하였다.

첻바퀴타럼 기법으로 만들었으며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장작가마에서 1200℃ 단별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 3〉



340 × 36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 시 작 품 3 〉 설 명

본 작품은 가마재임시에 가장 윗부분에 자리잡는 웃데기 허벅을 표현한 작품으로 윗부분의 높은 온도로 인해 목 부분이 주저 앉았다. 첩바퀴 타럼으로 성형하고 판장과 판장을 이은 다음 목부분부터 썰질기법으로 흙을 붙인뒤 물가죽으로 감싸고 끌어 올려 전을 만들었다. 전을 잡을 때 주의 할 점은 전을 너무 가늘게 잡으면 전부분의 이가 잘 깨지므로 두껍게 잡아 주어야한다. 허벅은 아래쪽 배를 내기 보단 위쪽의 배를 더 많이 내주어 전체적으로 풍만하게 보이게 성형 한다. 목과 전의 크기는 몸통 지름과 비교 했을 때 대략 1대 5의 비율로 성형한다.

보로롱 문양과 근개띠 문양으로 시문 하였고 기물에 재가 날라 붙은 자국과 재가 붙지 않은 자국의 색상의 대비가 뚜렷하게 표현 되었다.

〈시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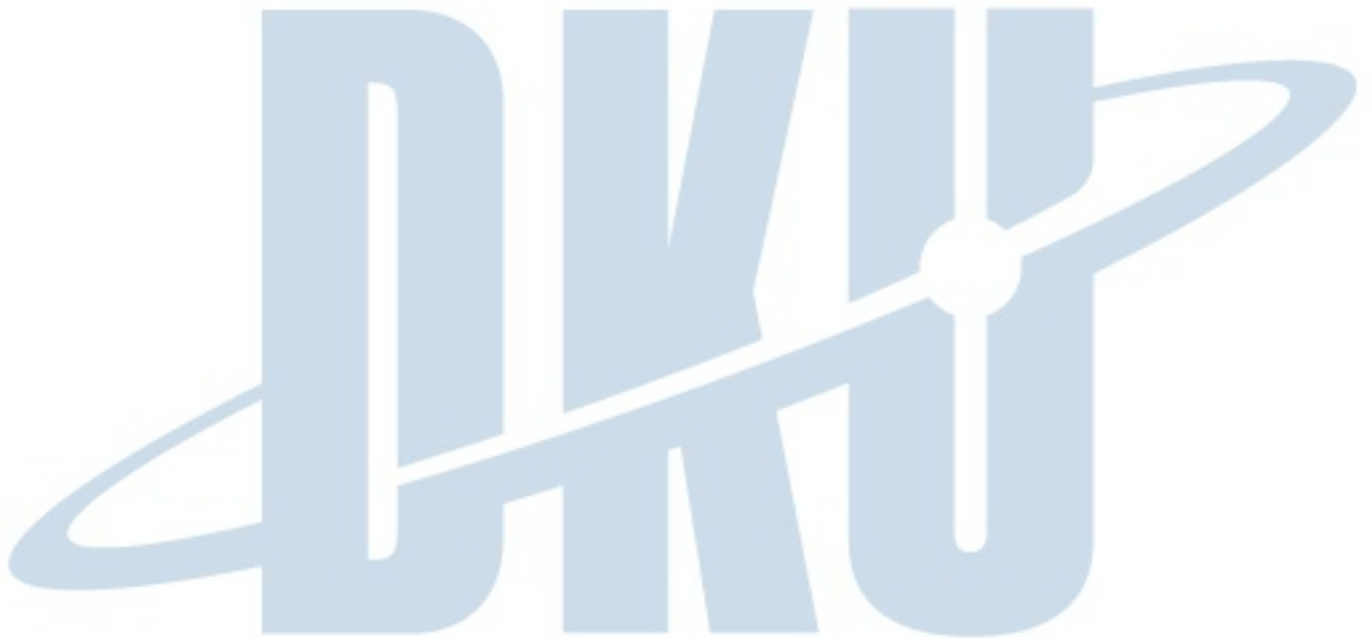


460 × 55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 시 작 품 4 〉 설 명

본 작품은 맞춤허벅이라고 불리는 바룻허벅을 표현한 작품이다. 바룻 허벅은 주문에 의해 사용하는 자의 요구에 맞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일반적인 허벅의 크기 보다 크므로 주로 성인 남자들이 사용 했다. 성형하는 방법은 〈 시 작 품 3 〉 과 같고 구쟁이닥살에 의한 문양을 표현하였고 보로롱 문양으로 시문 하였다.



〈시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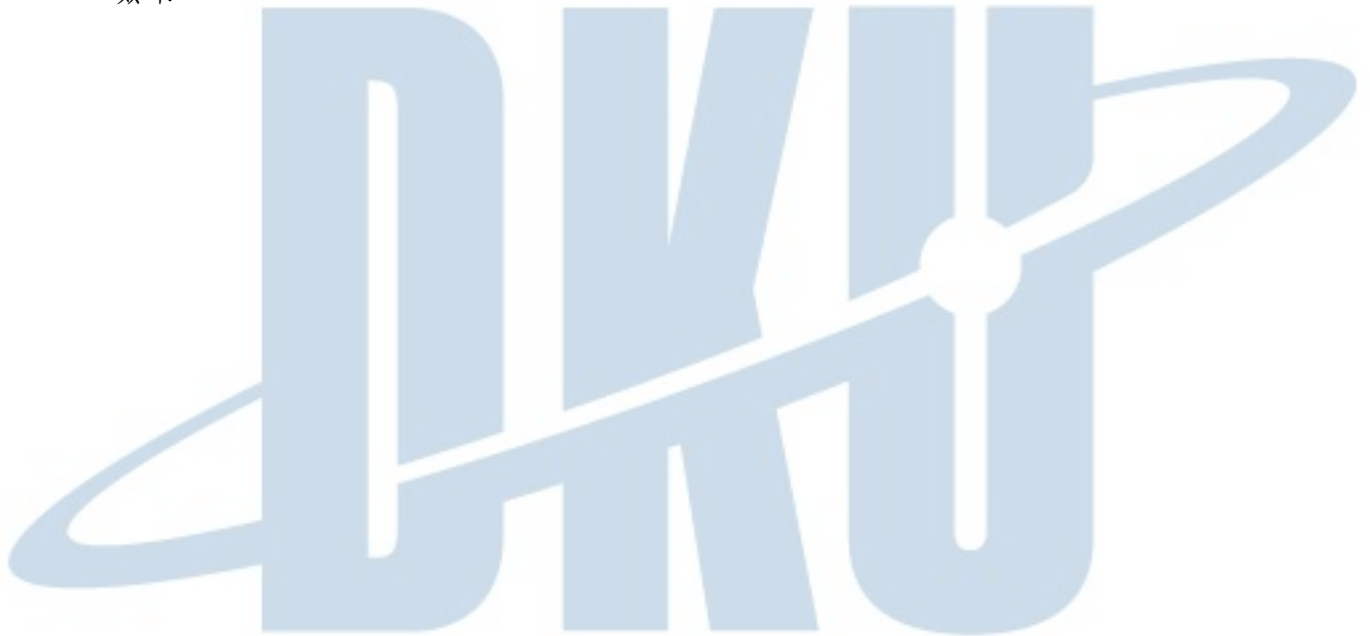
410 × 325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 시 작 품 5 〉 설 명

본 작품은 귀 능생이 을 표현한 작품이다. 능생이는 허벅 중에서 목부분이 거의 올라오지 않으며 전부분을 넓게 잡아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본 작품은 능생이에 손잡이를 달아줌으로써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뚜껑은 편의에 따라 나무뚜껑이나 현무암으로 된 돌로 뚜껑을 만들어 덮었고, 보통의 경우에는 장태(자배기)를 덮어 사용 하였다. 첻바퀴 타럼으로 성형하였고 근개띠 문양으로 시문하였다.



〈시작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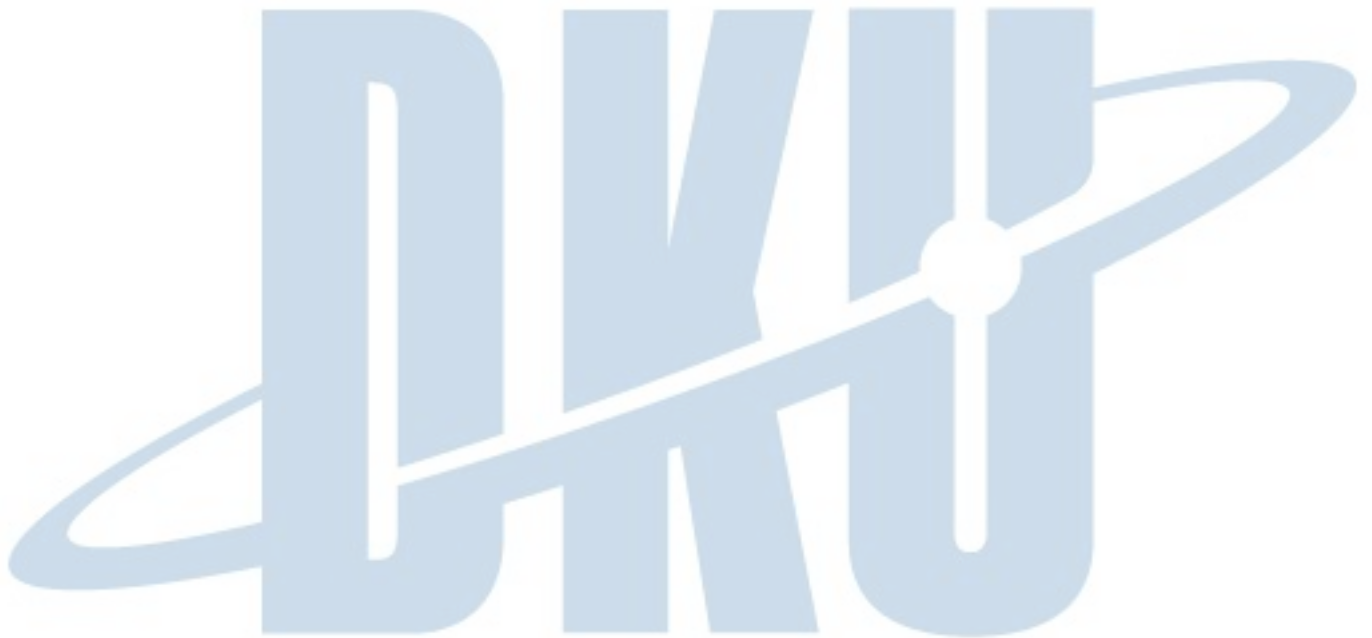
460 × 44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 시 작 품 6 〉 설 명

본 작품은 바릇허벅과 같은 사용하는 사람의 주문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 맞춤 능생이 허벅을 표현한 작품이다. 항아리 윗부분에 톱니문양의 띠를 둘러서 통용되어지는 능생이와는 차별을 두고자 했다.

챗바퀴타럼으로 성형하였으며 보로롱문양으로 시문하였다.



〈시작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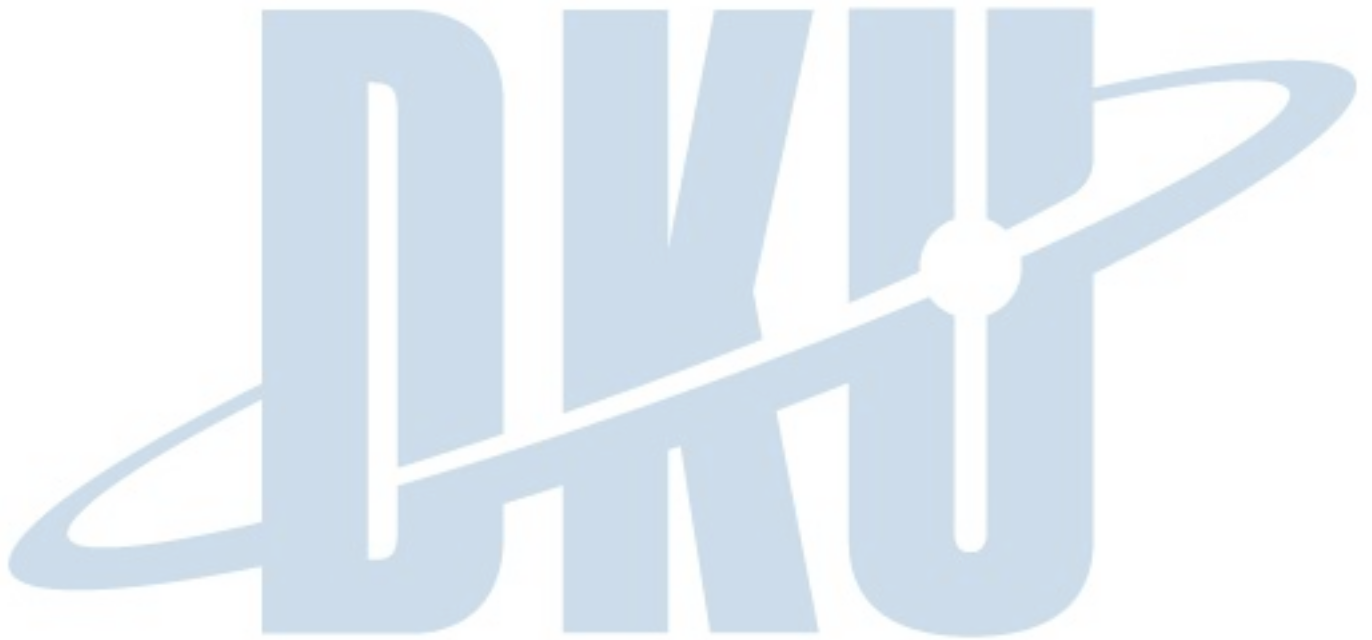


490 × 42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시작품 7〉설 명

본 작품은 능생이의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소성시에 조금을 올리고 장태를 덮은 자국 표현을 시도하였다. 구쟁이 닥살에 의한 자연스런 문양을 의도 하였으며, 성형하는 방법은 〈시작품 1〉과 같고 근개띠 문양을 세가닥 으로 시문 하였다.



〈시작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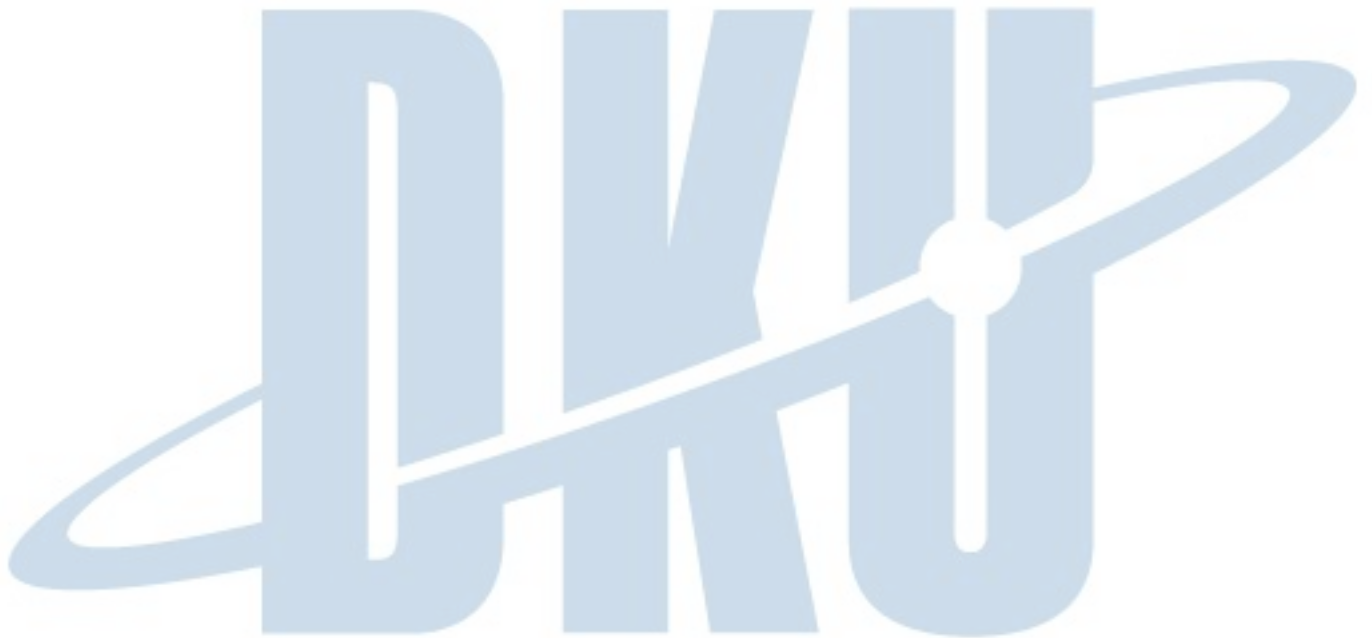
460 × 44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산화소성, 1200℃

〈 시 작 품 8 〉 설 명

본 작품은 알통개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부분에 조금을 올리고 그 윗쪽에 옷데기 허벅을 올려 소성하였다. 윗부분 기물의 무게에 의해 전부분이 주저 앉았으며 조금을 올렸던 전부분은 조금에 의한 문양이 표현되었다. 몸통부분에는 기물을 포갤 때 받치는 구쟁이닥살에 의한 자연스런 문양을 의도하였다.

챗바퀴 타럼으로 성형 하였으며, 보로롱 문양과 근개띠 문양으로 시문 하였다.



〈시작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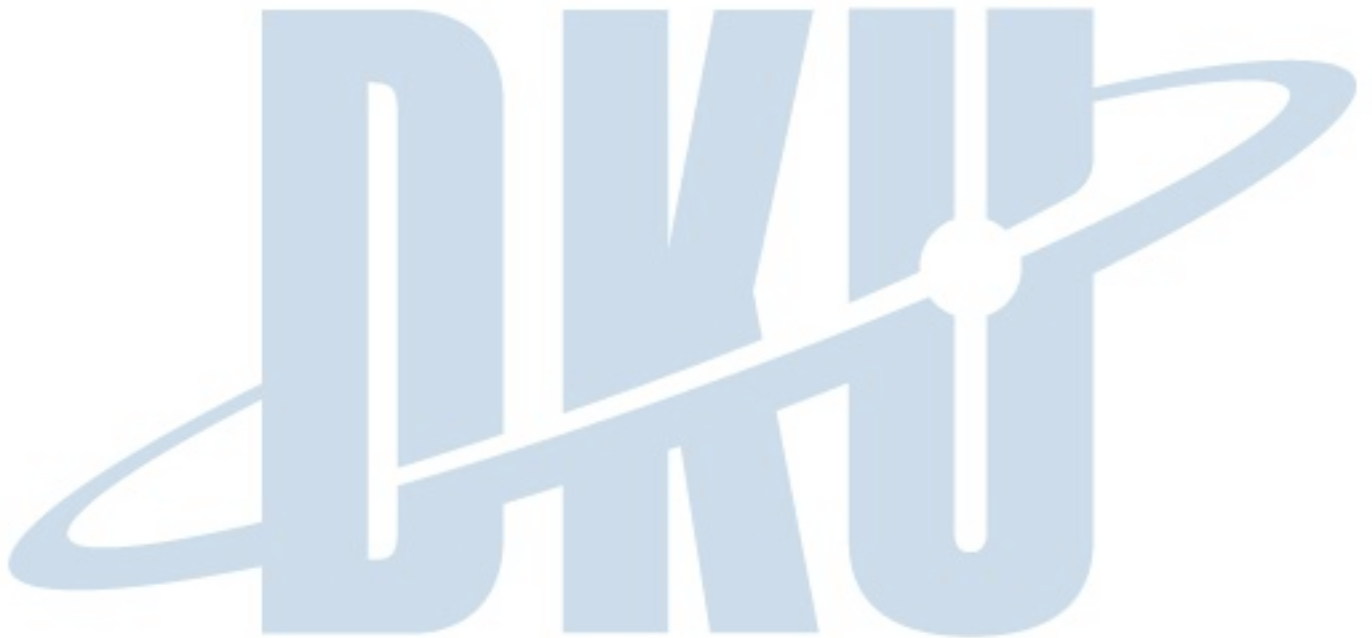


300 × 27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꺼떡이소성, 900℃

〈 시 작 품 9 〉 설 명

본 작품은 지새 시리(시루의 제주도 방언)를 표현한 작품으로 900℃까지 소성하여 연을 먹여 표현하였다. 지새시루는 물의 증발이 빠르고 습기를 빨아드리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음식을 찌 먹을 때 기벽에 잘 눌러 붙질 않았다. 내륙지방의 옹기토 보다 침탄되는 연이 더 짙게 나타난다. 챗바퀴 타럼으로 성형 하였으며 근개띠 문양과 누름띠 문양으로 시문 하였다.



〈 시 작 품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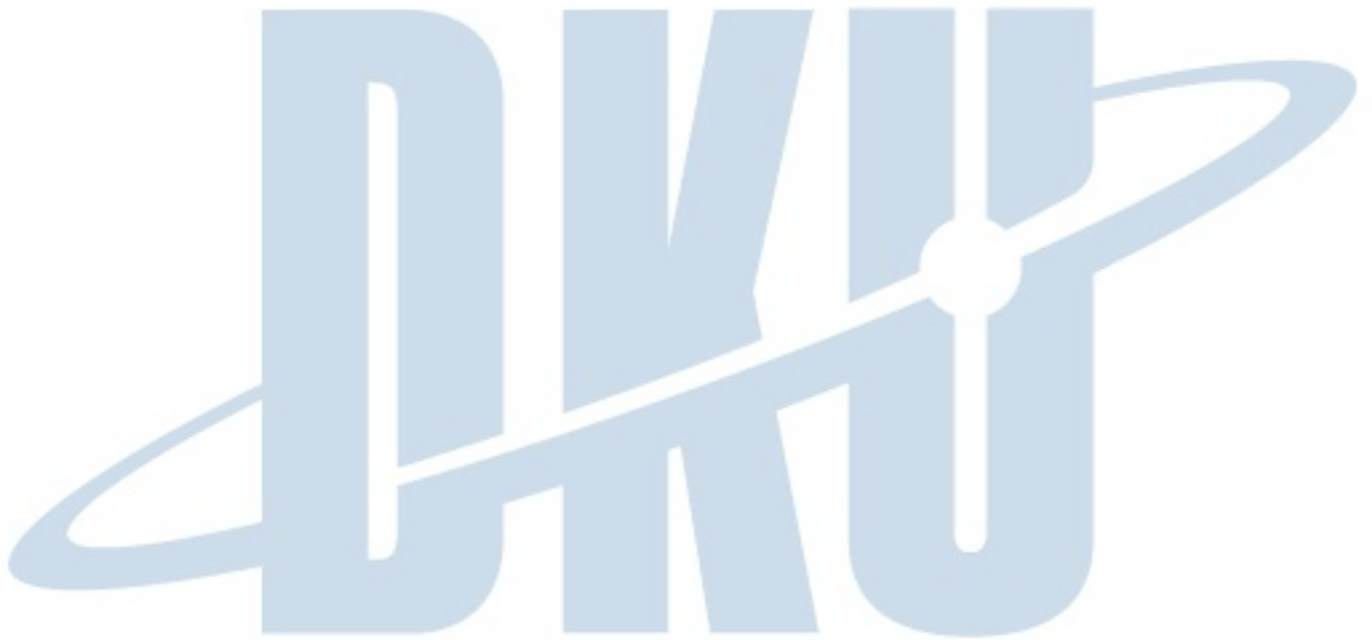


550 × 720 mm

제주토, 무유, 장작가마, 꺼먹이소성, 900℃

〈 시 작 품 10 〉 설 명

본 작품은 지새 춤향을 표현한 작품이다. 춤향은 나무에 짚을 동여 매고 짚의 끝부분을 항아리 속에 넣어서 비가 오면 그 물줄기가 짚을 타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물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빗물을 받아 지새함에 넣어 사용 하였으며 항아리의 숨쉬는 정도가 탁월하여 담긴 물이 썩질 않았다. 쳇바퀴 타럼으로 성형 하였으며, 제비턱 문양으로 시문하였다.



결 론

기대효과

제주도에서 옹기는 언제부터 인가 물을 길러 나르는 기물인 허벅만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실제로 제주의 옹기는 제주인의 삶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허벅 또한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을 길러 나르는 형태의 허벅이 있는가 하면 술이나 기름을 보관하는 용도의 허벅, 씨앗을 보관하는 허벅 등 전혀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 허벅은 크기에 따라 옷데기, 알데기, 대배기, 애기대배기로 나뉘기도 한다.

쓰임의 용도에 따른 분류와 생김새와 모양에 따른 분류 등 그 종류만도 36가지에 달한다.

본 연구는 잊혀져 가는 제주 옹기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좀더 풍요로운 생활, 첨단과학의 발전,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꾸어 왔던 소중한 우리의 유산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보존과 고찰의 필요성을 느낀다.

제주도로 흙을 채취 하러 갔을 때, 흙을 채취했던 곳은 흙이 좋기로 알려져 있던 지역이었다. 제주도는 밭(田)의 흙을 수비해 사용하는데 마침 밭(田) 옆 마을 길을 따라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 질 좋은 점토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수도관이 묻히고 그곳은 시멘트로 채워지고 말았다. 본 연구를 하면서 제주옹기의 보존을 위한 탐방, 관련연구 등 지속적인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삶의 풍요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로인해 정작 우리의 소중한 문화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도예의 장르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알기 전에 전통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느낀다면 더 좋은 창작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옹기의 잊혀져 가는 전통과 그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제주특별자치도(2007) 허벅과 제주 질그릇,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글렌 C. 넬슨 지음, 임무근, 신광석 옮김(1980) 도자예술, 미진사, 서울

강창언(2000)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제주

강경림(2000) 제주도허벅을 응용한 화병제작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영자(2002) 옹기문양, 옹기민속박물관

이경효(1999) 제주도 전래 가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허민자(1993) 도예를 통한 제주도 화산암의 조형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김미영(1983) 제주도 허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류제연(2005) 상감푸레 화기 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Abstract)

Study about manufacturing Jeju Herbuck and unglazed earthenware

Park, Byung Uk

Departmen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Advisor : Professor Park, Jong Hoon

The soil formation of Jeju is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according to geographic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The whole vessels made in Jeju are earthenware because it has small amount of iron such as zinc, copper and clay for porcelain comparing to other regions. Also there aren't the words like kiln or jar, they call a kiln 'Cave' and a jar is named 'Tong gae'. The kilns of Jeju is divided two types. 'Yellow Cave' is the kiln that saggars earthenware at more or less 1200°C (temperature of fire)

and 'Black Cave' is the kiln that saggars earthenware at around 900°C (temperature of fire).

This explanation sets its face to informing Jeju pottery with a dark brown glaze that is being banished nowadays and hopes to help in study about Jeju pottery with a dark brown glaze with bringing back that value by sagging potteries that were made in Yellow Cave and Black Cave with Jeju soil through an improvement kiln.

